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권 인 숙**

초 록

징병제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제도로써 기능해왔고, 세계 여러 곳에서 남성적인 시민권의 성장의 토대로서 국가가 기대하는 시민의 기본 기질을 공급하면서 성장해왔다. 여성은 징병제에 대체로 침묵해왔으나 징병제는 여성의 삶의 여러 면을 규정짓는다. 군가산점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여성의 취업권, 사회평등권이 침해받고 근본적으로 여성의 의존성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성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기본관념을 결정한다. 특히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맥락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질에 대한 한계를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징병제를 중심에 놓고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분석하여 징병제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보하고 우리사회의 현재의 시사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징병제와 여성의 관계를 논하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여성의 징병제의 참여에 대한 경험분석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오랫동안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앞으로 더욱 여성참여와 역할을 늘리려 할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여하는 여성도 늘어날 예정이다. 집단주의, 국가주의, 종교적 이념성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의 징병제참여가 가지는 역할을 단순화시키기는 힘들다. 국가 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 정서가 강할 뿐만 아니라 군대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과 동등한 의미의 시민권의 획득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 이 연구는 태평양 학술문화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스웨덴의 남 스톡홀름 대학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님, 조혜정선생님, Livia Alonso, 이스라엘의 Rela Mazalis, Orna Sasson Levy, 교정을 도와준 박진숙, 노주희님께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스웨덴의 경우는 양성평등의 사회적 이념이 발달해있고, 군대가 남성에 더 적합하고 남성이 더 우수한 군인이라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정당 등에서 평등을 위한 여성 징병제의 도입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고 있으나 냉전 이후 군인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효율성, 비용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사례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중요한 지점을 남긴다. 첫째는 징병제를 통해서든 아니든 군에서의 여성수의 증가와 역할의 확대는 당연한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의 방향으로 인정되고 있다. 두 번째, 징병제의 운용방식과 징병제를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서 징병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여성 징병제든, 징병제의 여성참여든 여성이 징병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징병제, 여성징병제, 시민권, 이스라엘, 스웨덴, 남성성

I.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여성도 군대 가자’라는 주장이 간헐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등장할 때마다 파문을 몰고 왔다. 그 시발점은 2003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봄 호에 ‘여자도 군대 보내라!—양성 평등한 군대를 위하여’라는 주장이 실리면서부터였다. 또한 2005년 7월 19일에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국회토론회에서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징집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가장 큰 계기는 2005년 9월 4일 한국 남성혐의회 소속 고모(18세) 여성과 윤 모(22세) 남성이 “여성을 징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건이었다.¹⁾ 결국 이 사건은 고모 여성의 논리가 분명치 않아 이들의 헌법소원이 기각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맺음을 했으나,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문과 각종 토론프로그램에서 여성징병제를 다루는 등 관심을 보였고 인터넷 토론장의 핵심논제로도

1) 한겨레, 2005 9. 5.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7월,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지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사회복지제 실시를 위한 병혁개혁안도 여성참여가 언제든지 거론될 수 있는 이슈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 징병제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맥락에서 거론되었다. 먼저, 일부여성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대안으로 ‘여성도 군대 가자’는 논리가 있다. <이프> 지면을 통해 유숙렬과 이김정희는 여성차별 극복과 군대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여성의 징병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두 번째는,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합리화를 위한 논리가 있다.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 보상 문제가 성별 논쟁으로 진전되면서 여성징병제는 남성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출구가 되었다. 사실 여성계에서 군대 참여 문제는 본격적 논의석상에 오르지 않고 있고, 후자는 건실한 논리로 사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5년 여성 징병제에 몰렸던 폭발적인 관심은 어떤 형태로든 징병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징병제가 여성에게 무관한 이슈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³⁾

2) 편집위원인 유숙렬은 권두언에서 양성평등의 시대에 군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여성주의자들도 병역의무를 함께 지자고 말할 때라고 주장한다. 여성학학자로서 유일하게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이김정희의 주장을 보자. “여성도 군대에 가자’는 담론이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왜 이제껏 하위담론으로라도 선보이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내심 ‘그 끔찍한 비인간화의 온상지인 군대에, 그것 말고도 받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이 왜 가?’라는 여성들의 집단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남자들의 비인간화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여자들만 발 담그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페미니즘인가? 군대에 대한 우리 여자들의 근원적이지 못한 이런 편의적 발상이 ‘한국 남성으로 태어나 억울하다. 성차별이다. 여자도 군역을 해라’라는 남성들의 철학 없는 반발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김정희, 2003: 88)

3) 징병제의 변화 요구가 형성되는 데는 훈련소 인분사진, 나체사진 등 각종 가혹행위가 속속 폭로되고 제대 후 사망사건 등의 보도가 이어지는 등 군대 사병문화의 반 인권적 실태의 심각함이 알려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01년 이후 출현하기 시작하고, 모병제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고하던 징병제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도 군대 가자’는 주장은 현 징병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2005년에 <한겨레 21>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9.4% (반대 40.7%)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했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병영문화 개선 등 군문화 발전 29.9%,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바뀔 것 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 19.3%, 징집에 따른 피해의식이 줄어들 것 15.7%,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 8% 등 병영문화와 징병제의 제도 변화, 성불평등 문화의 극복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대가 있었다(한겨레 21, 2005. 8. 16. 572호).

여성의 징병제 참여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적 참여이다. 여성징병제 혹은 사회복무제 등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 현 징병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 징병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병제 등 대안적 제도의 도입에 주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를 반대하고 반군사주의적 평화운동에 여성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니며 실현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실적 대안 능력은 갖추 수 있지만 해당 여성들의 반발과 각종 사회적 차별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의 과다한 희생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군대나 군사주의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 진영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방안은 의미 있는 운동이지만 현 징병제와 관련하여 여성이 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모병제 자체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 변화와 여론의 공감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징병제의 주대상자가 아닌 여성의 주장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반군사주의적 평화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나름대로 부각되어 있고 역사적 흐름을 잇고 있다.⁴⁾ 군사주의적 폭력성이 주로 남성에게 의해 나타나면서 여성은 평화적 존재, 남성은 투쟁적 존재로서 존재론화 되어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의 국가건설과 민족정체성의 핵심적 기관으로 자리 잡은 군대의 존재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4) 지난 100여 년 간 여성은 여러 가지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만의 국제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전쟁 반대 운동을 벌였고, 이후 이 운동의 맥은 1960년대 미국 여성의 평화를 위한 파업(1961)과 영국의 그린햄 킴은 운동(1982~1989) 등 평화 유지에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생각되었던 핵 반대 운동으로 계속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전쟁의 일반적인 폐해에 대한 전쟁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전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등 여성 인권 침해의 실태와 구조적 맥락을 살펴 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보스니아내전에서 여성에 대한 대규모 집단 강간과 1990년대 한국 여성 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사회에 제기한 일제의 주변 식민지국 여성의 강제적 성노예화(중군위안부) 문제는 전쟁 시 여성 인권 침해가 전쟁 범죄의 하나로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 평화운동은 분단의 반평화성에 집중하면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전쟁 파병 반대 등 다양한 차원의 전쟁 반대나 평화 지향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권인숙, 2005).

이처럼 다양한 한계와 합의에 대한 어려움은 징병제와 관련하여 통일된 대응책 마련, 혹은 가장 올바른 길 정립 등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 대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라는 회피적 모습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회피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기에는 지금의 징병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군대를 통해서 얻어진 남성의 희생과 보상의식, 여성차별의 정당화의식, 가장의식, 성차별적 분업의식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에 현 징병제의 성격 내지는 구조 변화를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절박한 시급성을 안고 있는 현안 과제이다. 특히 사회복무제는 사회서비스라는 봉사활동이 포함되면서 여성이 징병제에 참여를 안 하는 현실이 더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시급함에 대한 기초공사의 의미를 띤다. 징병제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참여 사례를 논하고 한계와 의미를 따져본 후 한국의 사회복무제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논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징병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여성이 어떻게 논리적 실천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 사고의 폭을 넓히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여성징병제이다⁵⁾. 여성징병제는 징병제의 직접적 여성참여의 한계와 의미를 가장 잘 밝혀볼 수 있는 경험으로서 징병제 참여 논의에 대한 타당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성징병제가 실시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국가는 이스라엘과 스웨덴뿐이다. 두 국가의 여성징병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은 병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여성징집제를 도입한 이래 6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반면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남녀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참여 논의를 지속시켜 왔고, 200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정부주도 하에 여성징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징병자의 수가 모자

5) 여성징병제는 아주 제한적 역사적 경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소련, 이스라엘, 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Derilbiss, 1982).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징집안이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해 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되었지만 모성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Stovall, 1998).

라서가 아니라 남녀평등권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진행되었다 (Boss, 2000). 현재는 자유당과 좌익정당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고려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징병제의 경험이나 논의를 진행시킨 위 두 나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징병제를 통한 여성과 시민권의 관계, 양성평등의 입지강화 노력의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 사회복무제를 시론적 수준이나마 여성적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영어로 된 관련연구물이 거의 없는 스웨덴을 2007년 2월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했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련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기존 자료와 신문 기사를 모았고, 부족한 부분은 2007년 7월과 8월에 실시한 관계자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보충했다.

II. 성별적 제도로서의 징병제

1. 민주주의와 시민권, 그리고 징병제

징병제는 시민권 개념과 일종의 쌍생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왔다. 민족단위의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제도로서 징병제는 왕에 대한 충성 또는 종교적 믿음을 대신하여 국가주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1790년대 말부터 1800년 초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가 국민개병 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징병제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건설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근대화 된 국가건설, 민족주의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징병제를 광범위하게 선택하였으며 지금도 70여 개국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렬, 1990; Anderson, 1982).⁶⁾

6) 한국의 주변국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다. 북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은 징병제를 시행 중이고 북한은 징병기간이 십 년으로 징병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에 속한다. 현재 징병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징병제 유지의 명분적 근거가 되었던 냉전구조가 무너지자 벨기에(1992), 프랑스(2002), 네덜란드(1993), 스페인(2002)이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꾸었지만 스웨덴이나 독일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김병조, 2002). 아시아국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부분 징병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비록 한국의 징병제는 군부독재의 물리적 근거로서 또는 징집의 강제성과 군대문화의 반인권성 때문에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지만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순기능이 많이 강조되어 온 제도이다. 징병제는 근대화의 중요한 특성인 신분제를 뛰어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계급적 차이를 넘어 남성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경험은 근대화의 미덕으로서 포장되곤 했다. Frevert는 징병제를 민족국가의 시민적 덕을 지킬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시민병사는 민주주의, 동포애, 평등을 구현하는 상징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Frevert, 2002: 1). ‘시민이자 곧 병사’라는 정체성과 함께 확립된 민족주의적 응집력은 근대국가 형성뿐만 아니라 국가중심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유효한 제도로서 인정받아 왔다(Sasson-Levy, 2003a).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민 개개인의 주권적 권리가 그만큼 신장되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제도로도 이해되었다(Frevert, 2004; Flynn, 2002). 이에 대해 최재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징병제는 사회통합과 형제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귀족의 아들과 요리사의 아들이 같은 막사에서 같은 훈련을 받고 서로 희생하면서 단결정신을 익히는 것, 이것은 평등의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징병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20세기 전반기의 스위스, 스웨덴 등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좋은 사례라고 이들은 지적한다(최재희, 2004: 219-20).

국가방어 문제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국가방어 문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들고, 전략을 결정할 때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징병제는 민주주의적 국가방어에 유의미하다는 분석도 있다(Kronsell과 Svedberg, 2001). 말레이시아의 경우처럼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수단으로, 반면 소수민족의 입장에서는 시민권 획득의 유리한 수단으로 징병제가 활용되기도 했다. 군대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

국토방위보다 인종융합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적으로 학교를 대신하는 제2의 교육기관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등에서 징병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징병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광기어린 민족주의적 동원도구로서 파시즘적 지배의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서도 드러나지만 Monro의 주장처럼 징병제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중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법의 힘으로 강제하는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Monro, 1982).

이런 차이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면 징병제의 기능이나 위치에 따라 대략 세 가지 나라군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시민권의 개념이 강한 나라들이다. 스웨덴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군이나 기존의 귀족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게 하고 각종 시민의 권리 증진에 징병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해 왔던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의미 규정이나 공감대가 상당히 커서 오랫동안 긍정적 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민주주의의 보루기관으로서의 동의도 높은 편이다.

두 번째 국가군은 유사시 징병제를 사용하지만 시민권의 발달과 징병제와의 결합이 약하고 징병제가 차지하는 긍정적 설득력이 역사 속에서 크게 자리 잡지 못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때마다 늘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나라들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의 국가들은 국가주의가 강하고, 국가를 위한 수단적 의미로 징병제가 강조되어 왔을 뿐 국가나 군에 대한 시민적 발언권이나 견제력이 동반 성장하지는 못했다. 징병제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체제로서 동의 정도가 높은 이스라엘이나 한국, 북한 등이 서로 다른 면도 많이 띠지만 이런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볼 만하다. 성별적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의무에서 징병제가 차지하는 의미가 큰 탓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국가성원으로서의 자격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들이다.

2. 남성만의 제도: 징병제

징병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논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진입이 자유롭지 않은 유일한 남성만의 제도로 남아있다(Frevert, 2004). 따라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징병제가 의미하는 ‘시민’은 ‘남성’이다. 한국의 징병제 또한 성별적 제도의 성격이 헌법에서부터 드러난다.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됨의 주요한 요건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항목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제3조에서 남자만이 이 요건에 해당함을 정해 놓았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성별화된 임무이고 국민 됨의 요건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배제의 원칙을 유지해 온 징병제는 여성학자들이 시민권은 결국 성차별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성 중심적 사회를 다지는 기초제도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Enole, 1993; Yuval-Davis, 1993).

시민권의 질은 단순한 의무와 권리 차원을 충족시켰는가의 여부에서 발생하는 성별화 수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징병제를 통한 남성중심성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곤 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여성의 낮은 취업률과 공적영역 부재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3급 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 이하)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1999년 여성과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7급 국가공무원의 경우 합격자 중 72.7%가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었다는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대 군인의 심한 독식현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권인숙, 2005).

문승숙은 1973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던 병역특례가 과학과 중화학산업의 남성중심성을 강화시킨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10~20%의 징집대상자가 방위산업체 등 중화학공업이나 과학 계통의 특수인력으로 일했고 이렇게 징집자를 경제산업, 과학 분야에 활용했던 과정은 이 분야의 남성화를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Moon, 2005).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군대경험은 기업문화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배적 이어서 기업의 군사문화의 영향력 강화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의 원류적 힘이 되었다.

징병제를 통한 남성중심성의 강화는 군필자의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나 징병자의 징병기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뛰어넘는다. ‘보호자=남성’, ‘보호받는 자=여성과 아이’라는 사회적 구도 속에서 가족에서의 가장 역할을 확립하는 남성의식의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방어라는 민족구성원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남성만 맡는다는 것은, 공적인 역할수행은 남성이 하고 사적영역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구도를 공고화 한다. 또한 징병제는 그 사회의 다수 남성에게 특정의 남성성을 고양시킨다. 군대의 남자다움은 무엇이 남자다움에 포함되고(inclusion) 무엇이 남자답지 않은지(exclusion)를 구분하면서 정의 내려지고, 남자답지 않은 것에는 여성스러운 것,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적용모델로 작동한다(권인숙, 2005).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세워지는 남성성은 군대의 남성성이 중요한 조직 원리인 남성연대의 기초가 된다. 동지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남성적 의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같이 했다는 동지애, 계급과 사회적 조건을 넘어서 남자라면 다 같이 겪는 과정이라는 공감대는 국가를 매개로 특정의 남성연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남성연대는 남성중심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남성연대망의 강화, 여성 차별적 관행의 강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가 국가방어의 도구로서만 주로 이해되어지고 군대에 대한 시민의 검열이 불가능하면서 반인권적 사병문화와 병역비리를 낳았다. 이런 조건은 한국 징병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의 강한 피해의식, 희생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징병자의 약자의식으로도 드러났다. 199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기피사건으로 절정에 올랐던 약자의식은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는 징병자들 일반이 가지는 의식이다.

이 약자의식과 피해의식, 남성 희생에 대한 공감대는 80% 이상의 남성이 군대에 가며 남성중심성이 강한 가부장적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낳는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불거졌던 남성들의 사이버 테러나 분노의 폭발 등은 좋은 예이다.

물론 한국의 군가산점제도는 예외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남성만의 제도로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여성의 시민권 제약, 사회적 발언권의 약화 및 남성동맹의 강화,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성별역할 강화로 성평등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면들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Kronsell와 Svedberg, 2001; Steans, 1998; Sasson-Levy, 2003b). 그러나 전통적으로 징병제는 남성의 일로 여겨졌고, 여성은 징병제에 관하여 대체로 침묵하여왔다.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여성참여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징병제는 전쟁 시 병력부족을 채우기 위한 국가의 교육책으로 실시되거나 고려되었었고, 현재는 항시적 분쟁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이 병력부족을 이유로 남녀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III. 여성징병제의 사례분석

1. 이스라엘

1) 여성징병제의 역사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스라엘 여성의 군대 참여는 공식적인 국가선언을 한 해인 1948년 이전부터이다. 시오니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 중 여성들은 핵심적인 군대조직인 Hagana(Defense Organization)에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엘리트 군사조직인 Palmach에도 참여했는데, 이 조직은 초기에 여성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조직에서 먼저 여성을 포함시켰고 상당한 토론과 투쟁 후인 1942년 5월에 여성참여가 합법화되었다. 물론 여성의 수는 10% 선으로 제한되었다. 이 시기 여성은 다양하게 존

재하는 각종 단위에 배분되었고 남성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이나 비전투적인 역할만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4천여 명의 이스라엘 여성은 영국군에 자원하여 여러 가지 보조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독립을 선언한 후 주변 아랍국들의 심한 군사적 반발과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들의 무장 저항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Yuval-Davis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국가건설은 “전쟁사회(war society)”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다(Yuval-Davis, 1985: 654). 전쟁의 시급함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⁷⁾ 전통은 여성을 새 사회의 동등한 멤버로 보게 했다. 여성들은 건국 이후 6개월 동안 가장 활동적으로 싸웠는데 일부는 사격수나 병사로서의 전투병 역할을 했고 다수는 신호전달자나 간호사로 일했다. 건국전쟁이 끝날 즈음 여성은 공식적으로 징병되었고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전투참여는 금지되었다(Levy, 1998: 43).

전쟁과 건국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의 군대 Israel Defense Forces- IDF는 시작부터 국가의 핵심적 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 그 자체로 혼용되는 수준의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Edna Levy는 “IDF는 시작부터 단순히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키는 일 외에도 넓은 범위의 일을 했다. IDF는 사회통합과 교육의 핵심기관이었다(레비, 1998: 51).”라고 묘사한다. 이는 건국지도자였고 초대수상을 지낸 Ben-Gurion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IDF는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민자 그룹들을 통합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해왔다. 군대는 수천의 젊은 여성과 남성을 선구적 농장 정착의 삶으로 안내했다. 또한 군대는 교육에서 중요한 도구임을 입증했다. 우리는 전쟁을 혐오하고 군사적인 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의 무기를 던져 버릴 수만 있다면 ...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더라도 우리는 국가개발의 광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IDF가 오늘날 대변하는 역동성에 의존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⁸⁾.

7) 1930년대의 시오니스트 운동의 지도자들은 주로 소비에트 유니온이나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Yuval-Davis, 1985: 654).

8) Ben-Gurion, 1970, 레비, 1998: 51에서 재인용.

IDF는 17만5000명 정도로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한다. 매년 5만3000명의 남성과 5만1000명의 여성이 징병 연령에 도달하고 13만8500명이 징병되어 군대에 간다. IDF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징병되는 것을 이유로 진정한 국민의 군대이고 민족의 상징 내지는 민족의 축소판으로 주장되어왔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큰 반발 없이 대중화되어 갔다(레비, 1998: 52). 사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국 초기부터 강조되었다. 이중 가장 큰 기대는 평등에 관한 것이다. Ben-Gurion은 “군대는 국민의 의무의 가장 높이 있는 상징이고 여성이 이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진정한 평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군대에서부터 멀리 있다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의 특성은 왜곡될 것이다.”⁹⁾ 라고 말한다.

이렇게 여성의 징병이 평등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민족 구성원 모두의 군대라는 이미지는 군대와 관련해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나 역할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남녀 간 징병은 여러 차원에서 다르다. IDF의 규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남녀 중 남성은 3년, 여성은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복무기간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성별적 특징은 여성은 병역을 면하기가 남성에 비해 훨씬 쉽다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한 경우 군대에 가지 않고, 본인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상 병역¹⁰⁾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40~50% 정도의 여성만이 징병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스라엘은 정규군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비중이 남달리 큰 나라이다. 전쟁이 빈번하고 테러 등의 문제를 자주 겪기 때문이다. 예비군의 기본 개념은 ‘모든 시민은 1년 중 11개월의 휴가상태에 있는 병사’로서 모든 국민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군인으로 평가받는다(Ben-Ari, 1998). 장교출신은 1년에 45일, 일반병사출신은 일 년에 30일간의 예비군서비스를 해야 한다.¹¹⁾ 예비군의 경우 남성은 55세, 여성은 50세

9) IDF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http://www.mahal2000.com/information/background/content.htm>)

10) 이는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딸이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지내거나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허락치 않는 전통 때문이다. (<http://www.wri-irg.org/co/rtba/israel.htm>)

까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예비군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

여성은 여러 예외 조항을 이유로 징병면제 혜택을 남성보다 많이 누리지만 군대에서 하는 역할에서도 제한적이었다. 1973년 인력부족과 시민 페미니스트 그룹의 요구로 여성은 보병과 탱크 병의 교사, 기초훈련 지휘관, 비행기 정비공 등 여성의 입장에서 비전통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Sasson-Levy, 2003b: 446). 그러나 이 비율은 높지 않아 1980년의 경우 여성은 850개의 전문적 역할 중 270개 부분의 일을 배당받았다(Yuval-Davis, 1985: 662). 남성에 비해 1년 정도 짧은 복무기간은 오랜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¹²⁾

무엇보다도 군대의 여성역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성의 전투참여이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국가가 성립된 이후 전투역할이 금지되어 왔다. 이 금지의 중요한 원인은 여성이 전투에 참여해서 적에게 잡혔을 경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이 전투참여에 배치된다는 사고 때문이다. 법적인 금지조치 자체는 1986년에 해제되었지만(Levy, 1998: 16; Happerin-Kaddari, 2004: 153),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비전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에 여성은 전투기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여성의 의회와 대법원의 참여비율이 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성을 일부 특화된 전투병 역할에 포함시켰다. 또한 적은 숫자의 여성이 국토 경비병, 비화확무기 다루는 일 등을 했다. 1999년 1월 이스라엘 국회는 군대의 모든 역할에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하는 법안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자원하는 여성에게만 이러한 직업군을 열겠다는 것이며, 군대의 요구를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여성은 IDF의 30%를 구성하지만 1천~1천500명만 전투단위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20명의 준장 중 여성은 3명뿐인 데 7~8년 전과 같은 숫자이다.

11)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의 Dr. Netanel Lorch의 IDF 에 대한 공식 소개 문건에서. <http://www.mfa.gov.il/MFA/Facts+About+Israel/State/The+Israel+Defense+Forces.htm>.

12) 숙련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경우 여성은 더 오랜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2) 젠더화된 시민권과 징병제

젠더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여성징병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여성의 징병제 참여가 과연 여성에게 온전한 의미의 시민권을 보장해주는가, 더불어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성의 지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징병제가 시민권형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제도라면 여성의 징병제 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의미의 시민권을 여성이 가지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여성징병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도 이런 관련성 때문이다.

Helman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스라엘의 시민권의 동력과 윤곽을 규정한다. 이는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 부족했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적 특성, 정착자-개척자사회로서의 특성, 전쟁과 갈등 경영이 우선시 되는 특성 등이다. 1948년 국가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시민권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국가의 행정기구의 권위는 주권영토경계안의 모든 인구로 확대되었다(Helman, 1999: 48).

국가형성이 모든 생존의 원천으로서 인식되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생겼으므로 시민적 권리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은 국가중심적인 가치관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빚은 전쟁과 일상적인 분쟁해결을 통해 국가의 생존이 모든 다른 가치를 압도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개인이 집단적 이익을 위해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집단주의적 정서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쟁과 군사서비스의 참여는 국가공동체를 강화하는데 최상의 헌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무를 다하는 궁극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리 잡았다. Berkovitch는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성적, 감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서비스는 진짜 시민권을 의미하고 상징한다(Berkovitch, 1997: 610).”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군사적 덕목과 같은 차원으로 형성되어 왔다(Helman, 1999: 49).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군대의무를 할 뿐만 아니라 인구재

생산까지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민권의 질이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시민권과 남성의 시민권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질적 차이를 낳는 것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개념은 남성성이다. 즉 남성성과 시민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결합력을 분석해야 젠더화된 시민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남성성과 시민권과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다. 이스라엘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유대인 전투병사의 남성성과 동일시되고 이는 곧 좋은 시민성, 자격 있는, 혹은 대접받을 만한 시민권의 상징이 되었다. 코넬이 제시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성 연구¹³⁾의 핵심이론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Connell은 다양한 남성성의 관계에 주목했고, “여러 종류의 남성성이, 동맹, 지배, 종속의 관계를 맺고 있다(Connell, 1995: 37)”고 보았다. 특정 시기에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 가장 규정력이 강하고 방향성을 이끄는 점 등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국가나 사회 조직에서 힘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기본요소가 되는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규정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대응하며 변화한다. 이에 대해 이영자는 정치라는 개념을 이용해 이 역동성을 설명한다. “규범의 정치로서 남성성의 정치는 특정한 남성성이 보편적 지배적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겨냥하는 성의 정치(이영자, 2000: 11)”인 것이다. 남성들은 이 남성성의 정치를 통해 여성성이나 여성적 역할에 낮은 서열적 지위를 부여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주변화한다. 이 주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주변화가 아니며

13) 따라서 남성성 연구는 단순히 남자는 이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문화적 규정력을 논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젠더관계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성역할 이론보다 발전된 형태로 성별화된 권력과 남성의 특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성역할 이론은 젠더 안에서/사이에서의 관계의 핵심요소인 권력과 권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코넬은 성역할이론이 결국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론적 비판을 하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설명의 틀로 제시하였다(Connell, 1995; Demetriou, 2001). 이에 대해 레비는 이상화된 남성성은 단지 남자에 대한 이야기나 단순히 젠더 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배적인 문화적 이미지로서 남성성의 의미와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남성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핵심 사회기관의 운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Levy, 2002: 358).

실제적으로 권력과 지위, 차별의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시민적 덕목이라는 이름하에 상식화, 보편화한다(권인숙, 2005).

이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서열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투병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사의 남성성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전투병의 남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nlo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물론 실제적으로 한 국가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별 볼일 없는 일상은 강력한 신화에 가리어져 있다. 병사가 된다는 것은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남성성의 궁극적인 시험이 전투 안에 있기 때문이다(Enloe, 1983: 13).

군대는 존재자체가 전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사는 전투라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화되고 의미화 된다. 병사의 희생은 군대에 갔다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희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속에서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방어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전사’이고, 많은 나라와 문화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병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의 기본 모델로 존재해 왔다. Anderson은 죽은 병사가 영웅적 상징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현대 문화 중, 무명 병사의 무덤이나 기념비보다 더 강한 흡인력을 갖는 상징은 없다.(Anderson, 1991: 3)”고 했다. 항상적 전쟁과 갈등을 전제로 국가를 구성한 이스라엘의 경우에 전투는 군대 서비스와 민족적 소속감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고리가 된다.

Edna Levy는 이스라엘의 전체 남성병사 중 20% 정도를 차지하는 전투병은 IDF에서 단순히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핵심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Sasson-Levy는 이런 전투병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위 확보와 시민성의 상징됨은 사회적 계층화를 낳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에서 서열을 강조하여 성별화된 시민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Sasson-Levy, 2003a: 357). Haperin-Kaddari는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최상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투에 관계된 역할

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투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보상체계와 동반되는 각종 의미부여 속에서 성별적 차이를 더욱 넓히는 것이다(Haperin-Kaddari, 2004: 155).

진급이나 승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전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헤게모니적 규정력을 가지는 요소가 된다. 이 작동맥락은 Sasson-Levy의 여성병사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여성병사들은 중산층 이상의 좋은 학교와 좋은 성적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군대 내 여성병사들 중에서 가장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무기 다루는 법, 탱크 몰기, 미사일 쏘기 등을 가르친다. Sasson-Levy는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전투병의 행동을 흉내 내는 것, 둘째는 전통적인 여성성에서 거리를 두는 것, 셋째는 성희롱을 사소화하는 것이다(Sasson-Levy, 2003b: 370). 이들 여성군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향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남성성이 군인다움의 모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의례행사를 전투군인과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 낮선 여성병사들을 만났을 때 “X하고 싶어(We want to fuck).”라고 외치기도 한다. 일종의 남장여자들이 하는 쇼(dragshow)라고 할 만한 데, 이런 남성적인 방식을 흉내 내는 것은 남성과 비슷해지는 것이 곧 서열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억압적인 군사조직 안에서 개인적 힘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화의 바탕에는 이들 여성군인들에게 다른 여성 일반을 약하거나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여성성이나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 내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성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asson-Levy는 2007년 7월의 인터뷰에서 “3년 전 군대에서 직접 한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을 경험해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20%의 여군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성적 농담이나 접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80%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희롱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약하고 의존적이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여성’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이를 막고 싶은 욕구 때문

에 성희롱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Sasson-Levy, 2003b: 375).

물론 이 남성성의 문제는 단순히 젠더적 위계질서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소수인종의 하층계급 남성들에게 신분적, 인종적 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은 전투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병이 못 될 경우는 비전투병이 겪는 차별을 경험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적합하기만 하면 전투병이 되기 때문에 전투병사들은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인종에서 올 수 있다. 전투병이 되지 않거나 전투훈련에서 떨어진 병사들은 교육의 질과 정보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진다. 이스라엘 교육체계(대부분 다른 나라의 교육체제처럼)는 민족적, 인종적, 계급적 기준에서 중층화 되어 있다. 비전투병 사이의 노동 분화는 이스라엘 교육체제와 노동시장의 인종적 계급적 위계화를 그대로 반영한다(Sasson-Levy, 2003a: 363).

전투병의 특권화를 얻어낼 수 있는 남성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전투병의 차별에 인종적 계급적 차별이 중첩된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경험을 가진 이민자로 구성되었고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이 존재하며 유대교, 이슬람, 그리스 정교 등 다양한 종교로 구성된 다인종 문화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군사화 된 남성성은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군대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 이는 각종 이념적, 실질적 혜택으로부터 이들 남성들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3)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

이스라엘 여성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시민권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군대서비스인 국가에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여성이 군대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여성의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스나이더의 시민-병사-남성성이 근대 서구국가의 시민권을 형성한 핵심요소라면 여성참여는 이를 뒤흔드는 요소를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징병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Rela Mazalis¹⁴⁾는 인터뷰에서 “여성징병은 여성들이 평등보다는 성별위계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성별 역할분담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한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었다.

Edna Levy는 이스라엘 여성은 남성이 군대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것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비는 병사 이미지를 이용해 젠더적 서열화를 설명한다. 이상적인 병사의 이미지가 여성성에 적대적인 관점에서 형성되는 남성성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병사의 몸과 여성병사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이런 상호적 적대성은 깊게 드러난다. 남성병사의 몸은 언제나 미션을 수행하거나 훈련하는 상황에서 그려진다. 반면 남자의 뒤에서 여성병사는 웃고 있는 식으로 표현된다.

여성병사와 남성병사의 이런 이미지화의 차이는 여성에게 무엇이 일차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반영하다. 늘 전쟁 가능성과 함께 하고 실제로 테러나 전쟁의 경험을 일상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 레비는 건국초기부터 어머니는 여성의 당연한 대명사로 기능해 왔다고 주장한다. Yuval-Davis는 1980년 이전 국가주의적 정서가 더욱 압도적일 때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곧 이 세계에 작은 병사를 데려오시겠군요.”였다고 회고했다. Yuval-Davis 또한 모성, 특히 소년에 대한 모성 발휘는 분명히 군사적 역할이었고 이스라엘 유대인 여성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역할이었다고 주장한다(Yuval-Davis, 1985: 669). 하지만 모성을 통한 시민권에 대해서 레비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지위가 이스라엘 여성의 공동체에서의 정당성을 부여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예롭고 힘 있는 영역의 공공활동에서는 주체성을 부정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14) Mazalis는 New Profile: Movement for the Civilization of Israeli Society 라는 단체에서 병역거부운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으로 침묵 당한다. 여성은 민족의 재생산자이지, 그들 자신이 온전한 시민은 아니다(Levy, 1998: 312).

사실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스라엘은 개인 평균 소득이 2만 불 정도의 국가로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Haperin-Kaddari는 유엔개발보고서 (United Nations Development Report)가 낸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젠더관련 개발지위(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젠더 권한 지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도를 나타내는 GDI는 1999년 현재 세계 175개국 중 23위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GEM은 3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Haperin-Kaddari, 2004: 11, 12). 또한 1999년 기준 의회의 여성참여비율이 11.6%에 머물고 있어 정치적 지위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인 이스라엘 국회의 1/4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 영역이 여성에게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일차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최신 통계를 살펴보자. 인간개발지위(Human development Index)는 이스라엘 23위, 한국 26위이다. GDI는 이스라엘 22위 한국 75위, GEM은 이스라엘 23위, 한국 53위이다. 이스라엘의 GDP가 2만4천 불 선이고 한국이 2만 불 정도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스라엘은 소득수준과 젠더 관련한 지위가 일치하는 편인데 반해 한국의 여성은 소득이나 다른 사회적 지위 면에서 무척 떨어지는 편이다.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를 낮추는 주요 요소인 종교, 집단주의가 아주 발달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해도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Sasson-Levy는 인터뷰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는 단순히 말하기 쉽지 않다. 특징적인 측면을 보자면 여성이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대학학위의 60%, 박사학위의 52%가 여성이다. 그러나 교수숫자는 남성보다 적고 보직을 하는 경우는 10~20%만이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의 3/4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현재(2007년 현재) 국회의원의 15%정도가 여성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탁아소에 어린 시절부터 애를 맡겨서 키운다. 스칸디나비아 쪽 나라들과 비슷하다. 모성보호도 발달해 있다. 법은 90년대 이후 진보적¹⁵⁾으로 발전하였지만 이에 현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교대상이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젠더화된 징병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비판적 연구 업적을 많이 남긴 대표적인 학자인 그녀에게 여성징병과 여성징병제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사회의 공적진출에 유리하다. 특히 정치지형에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평등에 도움이 된다. 만약 징병제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도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데 훨씬 불리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Sasson-Levy와 Rela Mazalis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대중 사이에서 여성의 군대참여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들도 직업적 경험의 확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의미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징병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Sasson-Levy와 Edna Levy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징집경험자들은 자신들의 군대경험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Sasson-Levy, 2003b; Levy, 1998). Dar와 Kimhi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은 나타난다. Dar와 Kimhi는 여성이 군대의 소수집단으로서 전투에 주로 참여하지 않으며 남성이 헤게모니적 지배력을 가진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성의 군대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의 전부가 될 순 없다고 주장한다. Dar와 Kimhi는 군대경험을 통해 사춘기를 갓 지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의존적으로 살지 않는 것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가족과의 결속력을 강하게 생각하는 여성에게 더 큰 의미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Haperin-Kaddari와 의견 일치를 보인다. Haperin-Kaddari는 1990년대 획기적인 법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한다. 1991년 가족법에서의 폭력금지(Prevention of Violence in the Family law), 1996년 남녀동등임금법, 1992년 한부모가족법, 1993년과 199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적극적 보호조치(affirmative action)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적고 있다(2004: 12, 13).

가 있다. 따라서 군 경험이 이들의 자율성에 도움을 주고 군의 소수멤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류를 강화하며 여성들은 남성보다 군대를 통해보다 확장되고 깊은 사회활동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 구조를 경험하는 것을 이득으로 보는 반면 여성들은 집이나 가족과 떨어지는 것과 인간간의 경험을 큰 이득으로 본다. 이들에 의하면 여성은 전투 등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역할을 하면서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자기 역할에 대한 능동성을 경험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적응 측면에서도 고난이도의 훈련단계에서만 남자가 더 적응이 쉬운 것으로 드러났을 뿐 남녀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ar 와 Kimhi, 2004).

국가 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 정서가 강할 뿐만 아니라 군대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과 동등한 의미의 시민권 획득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전투병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힘이 크고, 전투병의 희생만이 진정한 시민권적 자격을 논할 수 있는 희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성과 대립되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남성성이 군사화 되면서 여성군인은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여성의 징병제는 국가 중심적이고 종교적이며 집단주의적 정서가 강한 사회에서 여성이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직업적 경험과 인간관계 경험을 하며 공적 리더십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이스라엘은 군대의 여성참여를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IDF는 2007년 초 뉴스에서 여성의 징병면제 혜택을 줄이려고 하며 특히 종교적 이유에 의한 면제를 어렵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 역할도 더욱 확대할 방침을 밝혔는데¹⁶⁾ 형식상 현재는 여성이 일부 전투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역할이 성별차이 없이 열려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례는 징병제의 남성중심성이 여전히 여성의 차별 문제를 남기지만 징병제의 여성참여가 일정 정도 더 많은 차별을 막고 여성의 주체성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서 작용해 온 면도 확인할 수 있다.

16) Asia News, 2007년 4월 7일자, "IDF to recruit more women soldiers"란 기사에서.
<http://www.asianews.it/index.php?1=en&art=8683&geo=24&size=A>.

2. 스웨덴

1) 스웨덴 징병제의 특성

스웨덴은 1812년 이래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Kronsell과 Svedberg, 2001: 3).¹⁷⁾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을 인정하지 않고, 고립주의적인 중립주의¹⁸⁾를 채택해 왔는데 이는 징병제 존재의 가장 큰 근거로서 작용했다. 동맹국이나 동맹 세력의 군사협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주적 방어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만 했다. 또한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여러 면으로 펼쳐져 있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1989년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스웨덴은 전통적인 중립주의를 벗고 유럽통합에 가입하면서 나토와 함께 활동하면서 징병제 폐지가 아닌 징병제의 숫자를 줄이는 등의 징병제 개혁방안을 채택했다. 중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대상이었던 러시아 등 전통적인 외부의 전쟁위협은 적어졌지만 테러나 인종갈등 등의 새로운 위협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한 국제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이유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Leander, 2004: 585).

스웨덴이 냉전체제가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인 징병제 해체를 선택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Leander는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국가가 개인에 다양한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어, 인종 간 계층 간 갭이 크지 않은 사회의 특성을 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병역의무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교육기회 제공 또는 자기의식 확대의 기회로 본다. 스웨덴 정부는 우량한 물질적 조건과 기회를 제공받는 이들에게 복무 경험과 이후의 직업 선택 사전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았다. 또한 징병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징병제 참여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개인적 야심과 동기를 가질 것을 독려해 왔다. 특히 평화유지군 등의 국제적 활동은 ‘국제적 경험

17) 이에 대해 Leander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적고 있다.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을 세우는데 일부는 중세기부터라고 하고 일부는 1901년부터로 보기도 한다(Leander, 2004: 583).

18) 전통적으로 중립주의는 사회복지와 함께 스웨덴의 민족,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용어이다(Kronsell and Svedberg, 2001: 155).

19) 스웨덴은 남북 길이 약 1천600km, 동서길이 약 500km로 노르웨이, 핀란드, 보트니아 만, 발트해, 북해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 끝은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하고 있다. 국토의 크기는 450, 295km로 남한 면적의 약 4.5배이고 인구는 908만2천명이다.

쌓기'라는 커리어상의 이점으로 강조되곤 했다. 스웨덴에서 병역의무는 평등한 조직 안에서 커리어의 기초 쌓기와 모험적인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당화 되어 온 것이다(Leander, 2004: 587). 따라서 스웨덴의 징병제는 지지도가 높은 편인 데, 1999년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가 징병제를 지지했다(Kronsell과 Svedberg, 1999: 5). 그러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특징적인 점은 여성참여, 동성애 문제를 제외하면 징병제 자체가 커다란 논란거리로 등장하거나 대중의 관심영역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군대는 문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다.

스웨덴의 징병제는 18세~47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징병률은 많이 떨어져서 이전의 1/3 수준이다. 징병기간은 7.5개월이고 장교가 되려는 사람은 10~15개월, 해군에서 군무하는 사람은 18개월~20개월 정도를 복무한다.²⁰⁾ 매년 5만 명 정도의 남성이 징병연령에 도달하고 이 중 40% 정도만 징병된다. 여성은 지원제의 대상으로서 18세~24세에 입대 검사를 한다.²¹⁾ 남자의 징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대검사를 통해 군대에 적합하다고 판명이 난 여성은 이후 어떤 역할이 어울릴 것인가를 정한다. 이때 그 역할을 택할지 아니면 입대를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한은 여성에게 있다. 군대에 지원한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여성의 일이나 역할은 따로 없으며 350개의 모든 교육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열려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여성은 4만8360명 병사 중 1천107명이고, 매년 200~300명의 여성이 징병제에 지원하고 있다.²²⁾

20) www.wri-irg.org/co/rtba/sweden.htm

21) www.lumpen.nu. 2007-01-05

22) <http://www.pliktverket.se/sv/Statistik/>

*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징병된 남자와 입대시험과 지원을 한 여성의 숫자에 관한 통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징병총수	48,360	48,177	47,366	45,462	47,366	44,954	47,366	49,144	41,967	49,799
징병된여성	1,107	1,211	1,054	836	511	499	504	641	390	592
- 군대 서비스	437	511	555	396	271	204	242	341	281	399
- 시민 방어	-	2	3	6	2	3	4	7	1	1
- 교육적 예비역	8	16	16	17	16	-	-	-	-	-
징병된남자	47,253	46,966	46,312	44,626	46,359	44,455	46,209	48,503	41,577	49,207
-군대 서비스	10,169	13,946	17,211	16,216	17,219	16,658	19,308	24,824	25,651	31,092
-시민방어	127	268	469	695	1,128	1,639	2,194	3,338	1,574	1,055
-교육적 예비역	8	8,209	6,735	6,745	25,158	22,960	24,765	20,026	13,943	16,527

스웨덴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1920년대부터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종교적/비종교적인 이유 모두 법적으로 인정된다. 1994년에 발효된 총방어서비스행동법(Total Defence Service Act)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전투병 역할이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다.”²³⁾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기간도 7.5 개월이다.

2) 여성징병제

여성이 스웨덴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큰 여성조직인 Lottorna는 1924년에 이미 자원입대를 원했다. 이 조직의 목표는 총체적인 방어진에서 여성을 선발하고 역할을 맡기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²⁴⁾ 1938년에는 준비를 위한 여성조직위원회(the Women Association committee for Preparedness, Kvinnofreningarnas Beredskapskommit, K.B.K)가 설립되었고, 전쟁 시에 여성도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이 무기와 관련된 역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원을 통한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모든 인구의 군사 의무교육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징병제의 가능성을 조금씩 타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75년에 정부위원회는 스웨덴 군대 안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공군 장교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여성이 공군에 지원하여 교육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²⁵⁾ 1976년에 군사준비기관(Kurt Trnqvist, at the military preparedness-board for psychological defence (Beredskapsnmden fr psykologiskt frsvar))이 실시한 남녀 평등성 증가를 위해 군대 내 여성에 대한 대중의식을 조사한 설문 내용을 보면, 스웨덴인의 58%가 ‘여성이 군대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및 학계에서는 더욱 높은 72%가

23) (Chapter3. Par. 16)

24) www.lottorna.se

25) <http://www.rekryc.mil.se/article.php?id=11756>

‘군대에서 여성의 존재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Kurt, 1977).

이후 1981년 의회는 장교를 뽑을 때 지원자의 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녀 사이의 평등을 넘어서 정부의 관점에서는 군대에서 여성의 이제까지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채용하는 인력풀이 확대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최고사령관은 여성에게 군대의 모든 지위와 역할이 열려야 한다는 것에 경제적, 직업적, 의학적 이유와 여성의 생식기간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의회의 결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그 직업에 적합한가가 중요하며 성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은 모든 군대의 직위나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징병제는 당연한 ‘다음 과정’으로 인식되었다.²⁷⁾

그러나 냉전이 풀린 후 남성의 징병률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군인의 수에 대한 요구가 격감되자, 여성에게 의무군사서비스 등의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여성징병제를 일단 평등의 관점에서 계속 다루면서 군대 안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평등계획을 제출한다. 여성장교와 여성징병자, 여성지휘관을 늘리는 것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운 것이다. 즉, 여성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에게 군대와 관련한 직업훈련의 우선권이 주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기초적인 모집단 위인 징병제에 적은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여성청소년들이 군대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평등진흥안에 포함되어 있었다.²⁸⁾

2000년 스웨덴의 최고사령관 Johan Hederstedt은 군대의 여성참여에 관한 북유럽 학회에서 왜 여성이 스웨덴 군대에 필요한가를 논하였다. 그는 징병의 기초를 전 스웨덴 인구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인력선발에 유리하

26) <http://www.rekryc.mil.se/article.php?id=11756>

27) <http://www.rekryc.mil.se/article.php?id=11756>

28) 이 안은 또한 책임 있는 부모성(parentship)을 키운다는 명분하에 남성도 집에서 아이와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격려했다. 부모성도 자격과 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남녀사이의 월급수준의 차이를 없애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며 군대는 민주사회를 지키고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포함하는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대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생존과 신뢰의 문제라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²⁹⁾ 매년 그해의 정책 방안을 결정하는 2000년 정책제안자문위원회의 리포트 또한 군대서비스는 모두에게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군대가 여성참여를 반대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방어는 전체 스웨덴인의 관심이어야 한다. 새로운 군대의 인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의무복무를 증가시킬 이유가 충분하고 군대는 여성이 소유한 지식이 필요하다. 징집대상의 모집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좀 더 적합한 사람을 찾는 데 더 큰 기회부여를 의미한다. 어떤 역할이나 지위는 좀 더 광범위한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남성징병 과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핵심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여성을 포함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³⁰⁾

그러나 2001년과 2003년의 리포트에서는 여성징병이 현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적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당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징병을 추구하는 정당은 좌파당(the Swedish Leftwing party, Vnsterpartie)이다. 2006년 발의한 두 번의 법안에서 좌파당에 속한 의원들의 대부분은 여성징병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에서 대표법안자인 Gunilla Wahlen은 남성과 여성이 징병제의 인력대상에 포함된다면 한 사회의 모든 능력을 골고루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안에서는 군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의 군대 접근성을 늘려야 하고, 젠더교육을 더욱 광범위하게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³¹⁾ 이에 대해 Wahlen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29) Johan Hederstedt, 2002, in Slowly forward march-report from the first Nordic conference on women's integration in the national defense. The Swedish College of defense, p.7.

30) The ministry of defence, consideration of 1998 years duty inquiry, The State's official inquiries, SOU, 2000:21.

31) Left wing Party의 홈페이지, http://www.vansterpartiet.se/PUB_Fredforsvar/218,3889.cs.2006-12-20

국가방어에서 성별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성희롱이다. 하나의 성이 지배적인 조직에서는 성희롱이 많고, 그 성이 다수집단에 속하지 못할 경우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다른 상황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인구의 적은 수에 속하는 이민자 집단의 경우 차별적 대우를 받기 쉽고 연령 차이가 너무 클 때도 희롱의 위험은 커진다. 국가방어 안에서 성희롱은 큰 문제이다. 모든 정당의 정치적인 의지가 성희롱을 금지하려 하지만 아직도 군대 안에 존재한다. 성희롱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나 교육에 더하여서 조직 안에 동등한 숫자의 여성이 존재해야 한다. 병무청(National service Administration)이나 내가 만난 많은 군인들은 남성만 있는 그룹보다는 여성이 많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했다.

녹색당(Miljupartiet de grna)은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반대하고 민족적 지구적 무기해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부 녹색당 의원들은 1991년 군대징집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의 군대 경험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고, 일의 총체적 영역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³²⁾ 이전 집권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요구되는 병사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군대에서 여성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우파정당이나 자유당은 여성징병제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집권당인 자유당(Folkpartiet)의 Eva Flyborg가 지속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다. Flyborg는 인터뷰에서 “권리와 의무는 같아야 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원칙론을 반복했다. 스웨덴 중도파 정당(Centerpartiet)은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³³⁾ 여성징병제의 도입이 보다 경쟁력 있고 평등한 국가방어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논리이다.

32) Inger Schrling and others, the Swedish Green party. Motion to the Riksdag. 1990/91: F201

33) Homepage of the Swedish centre party, <http://www.centerpartiet.se/templates2/Page.aspx?id=33681>

3) 징병제와 양성평등

이스라엘의 징병제를 젠더관점에서 연구하는 소수 학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은, 시민권이 징병제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정부와 함께 정당이나 학자들이 남녀평등의 성취를 위해 징병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양성평등이 어떻게 관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징병제에서 잘 나타난다. 스웨덴 정부는 여성을 군대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같음(sameness)의 정책을 실천했다. 1980년 공군에서 여성을 받아들일 때 일반적인 정책의 핵심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성은 군대에 이미 존재하는 기준에 똑같이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등록 절차나 규율 등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같았다. 여성장교 지망자나 징병자는 남자와 똑같은 훈련절차를 밟도록 되었고, 어떤 예외적인 여성에 대한 취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자와 같이 자고 시설물을 같이 이용했으며(Sorensen, 1999), Kronsell은 인터뷰에서 남자와 여성이 샤워시설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성희롱에 더 효과적이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1989년과 1999년의 조사에서 여성장교와 지원자들의 60%정도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우월하게 여기고 남성적 연대감을 조직원리로 삼고 있는 군대에서 젠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현명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병무청(National Service Administration)의 여성담당관인 Isaksson은 군대 내 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성희롱을 꼽았다. 그녀는 개인 인터뷰에서 “여성군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성희롱이 군대 안에서 훨씬 높게 발생하고 군대가 과연 이런 면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인지 회의적일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여성군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상당히 진전했다. 2003년 1월 이전 사회당의 페미니스트 조직 S-Kvinnor의 대표 Inger Segelstorm은 스웨디시 데일리(Swedish Daily)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남성이 15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젊은 여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주장한 한 남성의 주장을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매년 10만 명의 여성이 9개월 동안 임신해 있고 1년 간 휴직하여 아이를 돌보는 현실을 떠올리며 상황이 이러하데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³⁴⁾ 이에 대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각개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했다.³⁵⁾ 지도적인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임무를 임신과 출산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 같은 해 3월, 징병자들의 의회(Conscripts’ Congress)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징병제에 찬성했다(Kronsell과 Svedberg, 2003: 12).

반군사주의자이면서 징병제 연구의 대표학자인 Kronsell은 인터뷰에서 “징병제가 군사주의적 질서를 여성에게 확산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여자-보호받는 자’, ‘남자-보호하는 자’라는 공식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군대가 문제적 공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공간임을 포기할 수 없는 갈등을 드러낸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반군사주의적 힘 보다는 징병제를 유지하려는 공감대가 더욱 크다. 또한 군대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려는 의지와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징병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징병제는 이데올로기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군대병력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실화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병사라는 고정관념이 약하므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가장 비중 있는 군사적 활동이 되면서 능력있는 여성병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사회에서 징병제를 둘러싼 고민은 양성평등 획득에서 여전히 징병제가 변수임을 확인하게 한다.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벗겨진다면 여성이 군대에서 남성과 동등한 가치

34) Inger Segelstrom, Debatt 2:16, 2003-02-04. The state’s sound and picture archive.

35) 논쟁자들은, Ali Esbati, Swedish left wing party의 청년조직 의장, Nina Larsson, Liberal Party’s 청년조직 전비서, Christofer Fjellner, Conservative party’s 청년조직의 전의장, Esbati는 여성징병제를 찬성했고, Larsson은 모병제나 혹은 징병 후에 자유선택을 주장했다. Fjellner은 Larsson과 같은 의견이었다.

를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성폭력이나 파견지역 여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의 남성중심성이 극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여러 국가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역할을 둘러싼 고정 관념적 성정체성, 특히 ‘남자=보호하는 자’, ‘여자=보호 받는 자’라는 구도가 무너져야 진정한 평등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도 징병제의 여성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케 하는 지점이다.

IV. 정리하면서: 한국의 사회복무제와 여성참여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을 보면 징병제를 통해서든 아니든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역할의 확대는 당연한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의 방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군 내부의 양성 평등적 이념의 도입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군문화의 변화의 필요성, 여성자신들의 군에서의 직업적 장래를 확보하려는 의지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군대가 있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군대는 외면하는 것이 최선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징병제의 운용방식과 징병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서 징병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사뭇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스웨덴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징병제의 경험이 해당자들에게 긍정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역할을 다양화하고 이후의 전문성과 연결시키면서 사회적 의미를 키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병사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심지어 장교까지도 서로 별명을 부르는 등 평등주의적 원칙을 실천하면서 서열주의 문화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다(Ben-Ari, 1998: 29). 이는 한국사회의 징병제 또한 내용적 변화가 가능하고 기존의 남성중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다양한 설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검토는 징병제가 외면이나 부정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확인케 한다. 현재 새로운 제도로써 도입될 사회복무제는 여성과의 관련성이 한층 높아지는 제도로써 여성의 적극적 정책참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논문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복무제가 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검토는 군대를 인정하고 여성의 국가와 관련된 역할의 수용을 가시화하려는 입장도, 혹은 비폭력 평화운동노선을 중심으로 군대문제를 바라보는 입장도, 단순히 누가 도덕적이고 누가 여성주의적인가라는 판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현실의 중요한 사회제도의 문제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의 방향에서 논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징병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사회복무제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성의 징병제 참여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제안으로서의 의미는 가진다. 여론의 열띤 반응³⁶⁾은 여성징병제 자체보다는 군가산점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³⁷⁾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주로 담고 있었다.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는 제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무런 강제적 요소가 없다. 적극적으로 실천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무제도도 여성의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제도이다. 제안할 당시에 여성참여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상정하듯이 이 제도를 통해 징병제의 젠더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6) 이와 관련한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다. 2007년 7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한 줄로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방안 검토’라고 적혀있다.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검토사항일 뿐인데, 같은 날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보면 ‘복무기간 22개월... 여성도 지원가능’ 이라면서 여성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의 경우는 ‘여성도 원하면 사회복무’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전형 가산점등 혜택’이라는 소제목 붙이고 있다. 7월 11일 중앙일보에서는 ‘여성사회복무제 구체적 내용은’이라는 주제 하에 ‘군가산점 부활 땐 여성복무자도 혜택’이라는 전면 기사를 싣고 있다. 뉴시스의 경우는 7월 11일자 뉴스에서 ‘여성 원하면 병역의무 부과 찬반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다. 사회복무제에서 여성의 참여가 모든 언론의 관심사항이 된 것은 군가산점제도의 발의와 맞물려서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징병제의 갈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국사회의 감정적 상황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37)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들은 2007년 8월 열린 여성정책연구원 자문회의에서와 여성정책연합 workshop에서 이 검토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첫째, 그동안 남성 안에서 병역면제나 의무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해소되고 여성의 평등욕구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스웨덴이나 이스라엘의 예에서 보았듯이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평등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적 제도이다. 이것은 남성간 성별간 다 적용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남성은 양로원이나 복지시설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그간 산업체에서 일하는 등의 대체복무제가 없어지고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남성들 또한 일정기간 군대가 아닌 공간에서 복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의 징병제의 논의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부분은 병역비리로 촉발된 공정한 병무집행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은 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평등성에 대한 욕구³⁸⁾라는 것이다.

평등성의 문제가 남성사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성별적 갈등이 가시화되어 여성의 평등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남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 없든 모두다 징병의 대상이 되어 어떤 식으로든 일정기간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병역비리의 소지를 확연히 줄이고 병역불평등성에 대한 논의의 맥을 짚을 수 있지만 징병제의 또 다른 큰 요소인 젠더문제는 아무런 해결 고리가 없다. 여성은 공공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 양성평등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복무제는 징병제의 개념을 확대했다. 사회복무제는 여자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라는 논쟁에서 초점이 여성이 사회서비스를 할 것인지로

38) 이 평등성에 대한 요구만이 유난히 강한 원인은 한국의 징병제는 시민권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함께 유지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같은 경우는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두 번의 투표를 했고 국민들은 두 번 다 거부했다 (최재희 2004: 232). 또 다른 예로서 독일의 연방군행정은 군의 부속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 형성된다. 이 자체는 연방고유의 행정조직체이다 (이계탁, 2005: 16). 군대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부여와 조직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없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 국가의 생존을 위한 남성들의 노력, 우리국가는 우리가 지킨다는 영토 개념만이 들어가 있을 뿐, 시민과 국가, 시민과 군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 설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은 평등성의 부분이고 군과 관련하여 '나도 희생하는데 너는 안해?' 라는 가장 기초적 문제의식 외에는 군의 각종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총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경험적, 상상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바뀌게 되는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열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군대가자라는 논쟁보다는 덜 소모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군대복무에서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강조된다면 그만큼 왜 여성은 하지 않는가를 합리화 시킬 명분이 줄어드는 면이 있다.

셋째, 사회복무제에서 여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의 문제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허락되고, 군사훈련 없이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징병제의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를 명백한 기준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체 등급에 따라 기존의 병역 면제자들이 하던 사회복무제 성격이 악화되고 선택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념형 보다는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속에서 선택을 하기도 한다(Battistelli, 2000: 57).³⁹⁾

징병제의 복무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통해 어느 정도 강화된다면 병역이 희생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작용하여 징병제가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 이는 징병제와 관련해 남성들이 희생논리위주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넷째, 군대복무와 사회복무를 하는 이들의 심리적, 실제적 서열차이가 여

39) 아마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하면 군사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단순하지 않다. 이탈리아의 경우 1997년 조사를 보면 16세에서 20세의 젊은 남성들은 59%/29%로 military service를 civilian service 보다 많이 선택했다. 20세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적어지지만 20세의 경우 44%가 군대서비스를 선택했다. (Battistelli, 2000: 54). 양심적 병역거부를 초기부터 허락한 독일의 예는 상징적이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어서 군대에 대한 제재가 심하고 시민이 전문 군대를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명분 속에서 유지된 징병제이다. 게다가 병역법상으로는 국가의 명분들 보다 개인의 권리가 상위개념으로 들어가 있었고, 개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징병을 거부하고 대신 시민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시민서비스는 아직 즐겁지 않은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민 서비스를 선택하는 젊은 남성들의 숫자가 늘고 군대를 거부하는 선택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해병대의 인맥이나 사회적 인정도를 고려해서 해병대의 자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남성성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군대서비스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낙인이 붙을 수도 있는 시민 서비스 중 어느 부분을 선택할 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다. 군대와 관련한 희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전투병의 희생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투병과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병사들의 희생의 차이가 엄격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국전쟁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이후 베트남 파병 외에는 전투병적인 희생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군대에서 간부들 사이에서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우위가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군대안에서 전투병과가 더 선호되고 더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남성들 사이에서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힘든 일을 많이 했는가라는 이야기는 서로의 명분적 지위를 구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07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남성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군 입대가 가져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48.2%), 취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16%), 학업능력의 저하(15.2%)등 시간의 공백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시간의 개념으로 주로 희생이 논하여진다면 여성이 사회복무제를 참여하는가 안하는가가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나뉘어서 희생의 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에서 여성의 사회복무의 가능성이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여성의 사회복무가 가져올 두 가지 효과, 인력풀이 넓어지면서 복무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성만이 시간을 희생한다는 생각은 징병제를 둘러싼 희생논리에서 여성에게 또 다른 불리한 면을 낳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인숙(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김병조(2002). 한국병역제도의 특성: 비교사회학적 분석. 국방대학교 교수논
총, 24집, pp.291-312.
- 오동렬(1990). 각국 병역제도비교연구-우리나라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중심
으로. 병무청.
- 이김정희(2003). 여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남 군대에 대한 꿈꾸기. 『IF』 봄호.
- 이영자(2000).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연구 제5집, pp.1-25.
- 최재희(2004). 징병제의 역사: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충돌. 역사비평 69호,
가을.
- Anderson, Benedict(1996). *Imagined Communities*, London and New
York: Verso.
- Anderson, Martin(1982). Forward, *Selected Readings on Conscription*,
edited by Martin Anderson and Barbara Honegg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Battistelli, Fabrizio(2000). *The Postmodern Military: Conscription or
Professionalism, Democratic Societies and The Armed Forces*,
Israel in Comparative Context edited by Stuart A. Cohen, London,
Portland (OR): Frank Cass
- Ben-Ari, Eyal(1998). *Mastering Soldiers: Conflict, Emotions, and the
Enemy in an Israeli Military Unit*.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Ben-Ari Eyal and Nurit Stadler(2003). Other Worldly Soldiers? Ultra-
Orthodox Views of Military Service in Contemporary Israel.
Israel Affairs, vol. 9. no.4. pp.17-48.
- Boss, Shira J.(2000). Equality may mean Army Service in Sweden, A
Controversial Proposal would make military service mandatory
for women, April 19,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 Connell, R.W.(1995). *Masculinit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 of California Press.
- Dar, Yechezkel and Shaul Kimhi(2004). Youth in the Military: Gendered Experiences in the Conscript Service in the Israeli Army, *Armed Forces & Society*, Vol. 30, No. 3 Spring pp.433-459.
- Devilbiss, M.C.(1982). *Women and the Draft*. The Military Draft: Selected Readings on Conscription, edited by Martin Anderson and Barbara Honegg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Enloe, Cynthia(1983).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zation of Women's Lives*. London, Winchester, North Sydney and Wellington: Pandora.
- _____ (1993). *The Morning After*.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evert, Ute(2004). *A Nation In Barracks: Modern Germany, Military Conscription and Civil Society*, Translated by Andrew Borham with Daniel Bruckenhau. Oxford and New York: Berg
- Flynn, George Q.(2002). *Conscription and Democracy: The Draft in Franc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Greenwood Press.
- Haperin-Kaddari(2004). *Women in Israel: A State of Their Ow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elman, Sara(1999). *Negotiating Obligations*, Creating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Redefinition of Citizenship in Israel, *Citizenship Studies*, vol. 3(1), pp. 45-70.
- Ivarsson, Sophia(2002). *Discourses around women in uniform*. The Swedish college of defence. Stockholm: Erlanders Gotab.
- Kronsell, Annica and Erika Svedberg(2004). *The Postmodern Military and Female Soldiers*, NIKK, no 1.
- Kronsell, Annica and Erika Svedberg(2001). *Emasculating the Duty to Defend? Gender Identities and Swedish Military Organization*, in Mark Elam (Ed) *Reconstructing the means of violence-Defence*

- restructuring and convers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pp. 88-107.
- Leander, Ann (2004). *Drafting Community*: Understanding the Fate of Conscription, *Armed Forces & Society*, vol. 30. no.4, pp. 571-599.
- Levy, Edna(1998). *Heroes and Helpmates*: Militarism, Gender, and National Belonging in Israel.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Monro, D.H.(1982). *Civil Rights and Conscription*, in *The Military Draft: Selected Readings on Conscription*, edited by Martin Anderson and Barbara Honegg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Moon, Seungsook(2005).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Sasson-Levy Orna(2003a). Military, Masculinity, and Citizenship: Tensions and Contradictions in the Experience of Blue-Collar Soldi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10 pp. 319-345.
- Sasson-Levy, Orna(2003b). *Feminism and Military Gender Practices*: Israeli Women Soldiers in “Masculine” Roles”, *Sociological Inquiry*, vol. 73(3), August, pp. 440-65.
- Snyder, R. Claire(1999). *Citizen-Soldiers and Manly Warriors*: Military Service and Gender in the Civic Republican Tradition,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orensen, Henning(2000). *Conscription in Scandinavia During the Last Quarter Century*: Developments and Arguments, *Armed Forces Society*, vol 26(2), winter, pp. 313-334.
- Steans, Jill (1998).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Introduc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Stovall, Holly(1998). *Resisting Regimentation*: The Committee to Oppose the Conscription of Women, *Peace & Change*, vol. 23. no. 4. pp. 483-499.
- Stjernstedt, Ruth(1945). *Women and defence*. Citizen knowledge about

the national defence, 22.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Sweden's defence. Stockholm: Saxon och Lindstrms frlag.

Trnqvist, Kurt(1977). *Women in the defence-an opinion poll autumn 1976*. Stockholm : The preparedness committee for psychological defence.

Yuval-Davis, Nira(1985). Front and Rear: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Israeli Army, *Feminist Studies* vol 11(3), pp. 649-675.

Yuval-Davis, Nira(1993). Gender and N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6(4), October, pp.621-632.

Weibull, Louise(2005). *The Woman on the Way into the Line Impressions from the Enlistment and the Conscription among a Group of Women that Joined the Enlistment during 1999-2002*. Stockholm: The institution for leadership and management, the defence college.

Women's Participation in Conscription: focusing on Israel and Sweden

Insook Kwon *

As a thorough male centered institution, conscription has been a foundation for forming masculinized citizenship and has grown providing basic components of civility around the world. Women have not been vocal on the issue of conscription, while conscription has made huge impact on women's lives. It has related to women's working rights, social equality as we can see in the controversy over the additional points system to post-conscripts in South Korea. Also it has been the crucial institution legitimizing women's dependency by emphasizing the binary concepts: men-protector and women-protec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conscript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Israel and Sweden, and tries to look at issues we need to consider in South Korea.

Female conscription has been sustained around 60 years in Israel. Participation and roles of women in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Israel is going to be expanded and enhanced. It is not easy and simple to measure the impact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since Israel is famous for collectivism, state-centered nationalism and strong religion. However, it is not imaginable how women sustain civil membership without participating in conscription in such as a nationalistic and militaristic country.

In Sweden, where gender equality has reached to a high-level, there is not such a concept that men are more qualified manpower than women in the military. Even though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gree with the ideological necessity of female conscription, the decreasing size of military troops since the end of cold war demeans its effectiveness. The two countries' cases leave important points for consideration.

* Associate Professor, Bangmok College of Basic Studies, Myongji University

First,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and roles in the military is now in trend. Second, conscription can be changed in the matter of how to manage, how to aim and how to implement. Third, whether it is female conscription or women's participation in conscription, that we need to put in priority and discuss.

Key Words: conscription, female conscription, citizenship, Israel, Sweden, masculinity